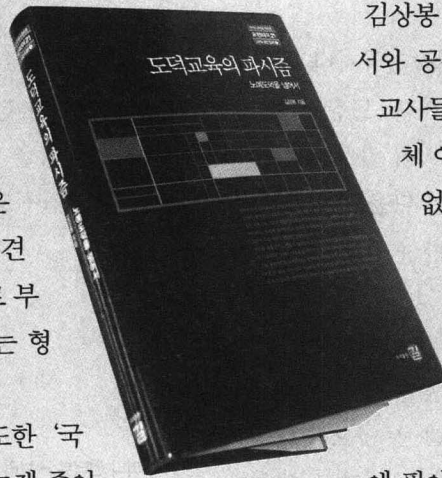


김상봉 교수의 《도덕교육의 파시즘:노예도덕을 넘어서》 ‘순종 노예 만들바엔 도덕교육 없애라’ 도발적 문제 제기, 학계 찬반론 비등

윤벤(윤도현밴드)이 2006년 독일월드컵 응원가로 선보인 록 버전 ‘애국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경건하게 불러도 시원찮은 판에 경고망동하면서 부르다니”라는 의견과 “나라 사랑하지는 데 흥겨운 분위기로 부르는 게 뭐가 나쁘냐”는 의견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한겨레21〉이 지난 1월 18일자에 보도한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기사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1968년부터 충남 지역 학교에서 쓰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초입,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를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꾼 것이다.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것의 의미 변화는 확연해 보인다.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국 도덕(국민윤리)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맥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써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지난해 10월 저술한 《도덕교육의 파시즘》은 되새겨볼만한 책이다. 그는 《도덕교육의 파시즘》을 통해 한국 도덕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물론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그에 따르는 진중한 담론도, 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할 터이기 때문이다.



김상봉 교수는 “공식적으로 주어진 도덕 교과서와 공식적으로 규정된 교과과정에 따라서는 교사들 자신조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도덕성을 길러주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현행 도덕교과가 혼돈과 부조리 속에 있다”면서 “한마디로 정체성의 위기”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그 원인을 ‘전두환 정권의 작품’으로 규정한다. 안보를 위해 참된 도덕교육을 도덕과 상관없는 국민윤리 교육에 팔아넘겼다, 순종하는 노예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도덕교과 폐지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냐”는 한 지인의 신랄한 비판도 덧붙인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교수신문〉과 인터뷰한 모 대학 교수는 “특정 학교의 출신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김 교수의 의견에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의 경우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처사”라거나, “구석기 시대의 고정 관념으로 남의 영역에 시비는 거는 것”, 또는 “역사적 맥락없이 특정한 관점에서 음모적으로 해석해 지나치게 편협하고, 오히려 이런 시각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반박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도덕교육의 파시즘》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고, 제3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책 한 권의 찬반양론에 매몰되지 않고, 도덕교육 관련 학계는 물론, 우리 교육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진중한 탐색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도발적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반론과, 두 관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장동석 기자